



왼쪽부터 첼로 조이 송씨, 피아노 영 유(한국명 유승은)씨, 바이올린 하나 김(한국명 김하나원)씨.

美 줄리아드 음대 출신

한인 여성 3명 트리오 결성

미국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한인 여성 3명이 트리오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피아노 영 유(32·한국명 유승은)씨와 바이올린 하나 김(28·한국명 김하나원)씨, 첼로 조이 송(27)씨는 최근 '스트라다 트리오'를 결성하고 16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이어 18일(현지시간) 오후 로스앤젤레스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캘리포니아주 동포사회에 첫 선을 보였다.

줄리아드 출신의 한인 여성들이 트리오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 '스트라다'는 이탈리아어의 길이란 뜻이다. 하나 김 씨는 이날 "3명이 챔버뮤직(실내악)을 하길 원했고, 서로 연주 스타일을 잘 알아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 의기투합하게 됐다"며 "3개월 간 만나 연습해 이번에 무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오케스트라 부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앞으로 음악 활동과 스케줄 등을 홈페이지(www.stradatio.com)를 통해 알리겠다"며 "올해 안에 고국 무대에 오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송 씨는 줄리아드를 나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독일 베를린으로 가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다 최근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 '독극물 콜라' 범인 검거 특진한 나종식·정인식 경사

“사건 확대 막아 다행...빨리 마무리됐으면”

“아직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승진을 하게 돼 조금 씩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로 몰아넣은 코카콜라 독극물 사건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나종식(34) 경장과 광주 서부경찰 정인식(37)경장이 코카콜라 독극물 투입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18일 경사로 1계급 특진했다.

이들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특진을 하게 된 공로를 모두 동료에게 돌렸다.

경찰은 범인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ID를 도용하고,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끄는 등 전형적인 지능범죄의 행태를 보여 검거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나 경사의 끈질긴 이메일 추적과 정 경사의 매서운 눈초리가 범인을 조기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나 경사는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한 협박 이메일이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에 쓰인 이메일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두 사건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던 나 경사는 두 사건의 중심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여·41)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광주 서부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나 경사가 끈질긴 수사 근성으로 범인을 찾아낸 경우라면 정

인식 경사는 매서운 눈초리로 현장에서 범인을 알아본 경우다.

용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던 정 경사는 지난 9일 저녁 8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범인을 한 눈에 알아냈다.

정 경사는 “용의자로 보이는 여성에게 ‘박○○씨 맞죠?’라고 물어봤을 때 이를 부인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용의자가 손을 떨어 범인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정 경사는 또 범인이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범인의 주머니에서 ‘따릉따릉’하는 전화벨이 울리면서 9일 동안 지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독극물 사건 용의자를 붙잡게 됐다.

나 경사는 73년 광주에서 태어나 지난 1999년 순경으로 입사, 화순 경찰서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 특진은 지난 2004년 경장 승진에 이어 2년만에 이뤄졌다. 나 경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죄 피의자를 조기검거하는 데 일조해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정 경사는 지난 1992년 순경 공채로 사법기동대 진압부에서 경찰에 입문해 지난 2000년 경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지난 4월 초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빈집털이범 검거에도 큰 역



코카콜라 독극물 투입 협박 용의자를 붙잡은 데 혁혁한 공을 세워 18일 1계급 특진의 영광을 누린 정인식 경사(사진 왼쪽)와 나종식 경사(사진 오른쪽).

활을 해 '특진 1순위'로 꼽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茶飯事...차는 곧 생활이다”

<다반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 떠낸 여연 스님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한 초의 스님이 말년을 보냈던 해남 일지암. 그곳에서 직접 500여 평에 달하는 차밭을 손수 가꾸며 ‘다인(茶人)’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연스님이 최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현암사)를 펴냈다.

“다반사(茶飯事), 즉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다는 말처럼 차는 일상의 삶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우리나라의 변질된 차 문화에 대해 쓴소리를 던진다.

“요즘 우리의 차문화는 지나치게 고급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차는 형식보다는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라는 사실을 간파할 때 말입니다.”

스님이 ‘차’를 알게 된 것은 지난 1971년 우연히 한 스님에게 차를 대접 받고 나서부터. 차물을 끓이고, 차를

마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차’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 이 책에는 출가한 후에 ‘차’의 매력에 빠진 스님의 지난 35년간의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다.

‘차는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역사와 문화 속의 우리차’ ‘생활 속의 우리 차’ 등 차에 관한 모든 것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학술적인 이야기를 넘어 직접 차를 따고, 뒤으며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들이 응축되어 있다.

스님이 말하는 우리 차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스님은 어떤 차도 흥내낼 수 없는 은은한 맛과 향기, 색깔이라고 답한다. 오염이 되지 않은 땅과 차 재배에 적절한 기후가 최고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것.

특히 우리 차는 노화방지과 항암요



과가 뛰어난 카테킨과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이밖에 언제 어디서든 일상에서 항상 접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차’의 미덕이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보수적인 英 관객 심금 올리겠다”

런던서 공연 갖는 김덕수씨

“우리 민족만이 가진 색깔, 기운, 에너지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15~23일 열리는 세계적인 타악기 페스티벌인 ‘리듬스틱스 2006’의 초청을 받아 17일 런던 퍼셀홀 극장을 찾은 사물놀이의 간판스타 김덕수(54)씨는 공연에 앞서 “순수한 우리 음악으로 보수적인 영국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고 다짐했다.

김씨의 무대는 올해 한국-영국 상호 방문의 해를 기념해 영국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일련의 문화행사 중 하나다.

내년이면 다섯 살 때 남사당패를 따라 광대생활을 시작한 이후 연주경력 50년을 맞는 김씨지만 “시집 간 신부가 첫 날 밤을 맞는 기분”이라며 벅넨 감정을 감추지 않고 설레는 심정을 밝혔다.

김씨는 “리듬스틱스 음악제에서 우리 판, 우리 자연에서 나온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한국음악을 연주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매우 반가웠다”며 “리듬스틱스는 매년 질 높은 연주자를 초청하며, 관객들도 귀 명창이



라고 할 정도로 수준급”이라고 말했다. 김덕수 사물놀이의 공연은 전체 티켓 300장 중 270여장이 팔릴 정도로 영국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공연장에서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인 영국인 관객들도 사물놀이패의 신나는 연주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엄청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일부 관객은 공연 후 뒷풀이 무대에 올라와 사물놀이패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김씨는 이미 1971년에 영국에서 처음 사물놀이 공연을 했고, 98년 런던 주자를 초청하며, 관객들도 귀 명창이

◇ 정보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김광중

내방 ▲정기연 동신대 총장 ▲남궁협 동신대 홍보실장

윈프리, 게일 킹과의 ‘동성애설’ 일축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52)가 자신이 발행하는 여성잡지 ‘O 매거진’을 통해 자신의 친구이자 영화배우인 게일 킹과의 동성애설을 일축했다.

윈프리는 O 매거진 8월호에서 “여성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다”며 “사람들의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킹과는 30년간 우정을 나눴으며 하루에도 평균 4통 정도 전화통화를 한다면서 “킹과의 관계는 마치 우리 보다 더 큰 존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 같으며 매우 재미 있다”고 덧붙였다.

‘왕년의 흥련왕’ 日 오 사다하루 감독

위 종양제거 수술 성공적 마쳐



일본 프로야구 왕년의 흥련왕 오 사다하루(66·王貞治) 소프트뱅크 호크스 감독이 위 종양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8일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치(報知)’에 따르면 오 사다하루 감독은 전날 도쿄 신주쿠 게이오병원에서 게이오대학 의학부 외과팀으로부터 위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지난 5일 위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밝힌 뒤 입원한 그는 병실에서도 팀을 염려할 정도로 집념을 보였다.

오 감독은 수술 당일 구단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른쪽 엉덩이 감염에도 출장을 강행한 “마쓰나가(노부히코)의 상태는 어떤가?”라고 물으면서 소속 팀을 걱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롱이’ 이영표 볼보 SUV 탄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영표(토트넘 핫스피어) 선수에게 볼보의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XC90을 제공받는다. 이영표 선수가 타게 될 차량은 XC90 T6 AWD로, 배기량 2천922cc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전복 방지 시스템(RSC)을 장착했다. 이영표 선수는 앞으로 한국에 체류할 때마다 전용 차량으로 볼보 XC90을 이용해 된다고 볼보코리아는 설명했다. XC90 T6 AWD의 가격은 8천333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정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나상우(전남도 교육청 행정과장)씨 장남 석환(김정장 법률사무소)군 송기만씨 장녀 소은양=22일(토) 오후 2시 오케라하우스.
▲김중기씨 아들 용운군 채수삼씨 딸 원경양=22일(토)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 오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녀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수요일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동창·동문회
▲광주 진흥고 2회 동창회(회장 조갑현) 월례회=19일(수) 오후 7시 다래정.011-601-2207
▲경기도 광주·전남 총동창회(회장 조기상)하게 모임=19일(수) 오후 6시30분 금수장호텔 2층 아리랑 하우스 잔미홀. 529-2888, 227-4848
▲정읍 호남고 동문회 모임=20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 해물탕. 011-9609-6780

모임

- ▲무등클럽 월례회=24일(월) 오후 7시 주월동 소도 일식. 676-6669
▲하도은씨 교회연=23일(일) 낮 12시 운남동 함급부회.954-4621

종친회

-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20일(목) 오후 7시 광명해물가든. 010-6688-8983

향우회

-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최영관) 이사회=20일(목) 오후 6시30분 수 원왕갈비. 368-2003

모집

- ▲장흥군 향우 2·3세 하계 수련 캠프 참가자 모집=향우 2·3세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접수. 선착순 80명. 문의 061-863-1527
▲한미중앙재민지리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화훼장식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강 지급. 문의 (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광주 남구시니어클럽 시험감독관 모집=교직·공무원으로 퇴직한 60세 이상으로 모집 인원은 30명. 062-351-5070, 654-6080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업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

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속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홍패션·커피·필트·계량한복·손뜨개·꽃꽂이·야

동미술·포크아트·가곡공예 등. 광주지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부음

- ▲민병갑(전 전남대병원장)씨 별세 동기(재미사업가)·승기(가천의대 외과교수)·은주(인천 민안과 원장)씨 부친상 장영진(인천 장외과 원장)씨 부부상=발인 20일(목)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220-5049.
▲유양열씨 별세 류재화(울산 류재화내과 원장)·재경(광양포스코 팀장)·재한(전남대 교수)씨 부친상 정성수·장후정씨 부부상=발인 20

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김기수씨 별세 찬호(5·18기념재단 국제협력팀장)씨 부친상=발인 20일(목) 서울 안암동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102호. 19일(수) 오후 2시 5·18기념문화관 주차장에서 버스 출발. 062-456-0518.

▲최명진씨 별세 수린·수갑·영수·윤수·영례·영심씨 부친상 정기철·김수연씨 부부상=발인 20일(목)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250-4407

▲조삼남씨 별세 표영래·영도·연자·순애씨 모친상 이후진·김병일씨 부모상=발인 19일(수)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250-4412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문의 (062)521-1100